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공동추모제

“아픔 넘어 이제 우리가 바꾼다, 우리가 지킨다”

추모사·현장교사 발언·공동결의문 낭독

“여전히 고통 속 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공동추모제가 1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순직한 동료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 6개 교원단체에서 마련한 이날 추모제에는 전북 교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추모사와 현장교사 발언, 추모 공연(뮤즈 그레이),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부재했던,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힘들게 털어놓았다.

이어 황등남초 오문혁 교사는 현장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조항 입법, 아동학대 무죄 판결에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시스템 문제 해결, 민원과 의심만으로도 교원을 의무 신고해야 하는 문제 해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 개정, 학부모 담임교제 요구에 대한 합당한 절차 마련 등 6가지 요구 사항을 이야기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총 회장 등과 서이초 순직교사 추모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서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관련 법 개정이나 종합대책 마련도 중요하지

만 무엇보다 전 국민이 ‘교권은 중요하다, 학생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도 함께 해 순직 교원 1주기의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보완 입법을 통해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정서학대 피소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은 학대는 정서학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와 학생처는 지난 17일 '2024 전북-서울대와 함께하는 전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식을 열었다.

전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진행

전북대, 서울대와 공동

전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지역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와 학생처는 지난 17일 인국찬 대외·취업부총장, 서울대 김성규 교육부총장,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북대-서울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관계 정례회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전북대학교 학생처·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음이 참여하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LaTeX 등 활용

수학 자료 개발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19일 양현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수학교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수학교사들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등 수학교사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연수는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AI와 교사, 교사 상호간 협업 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문서 조판 언어인 LaTeX와 그래프를 그리는 언어인 TikZ, 세부적으로는 문서 조판 언어인 LaTeX와 TikZ 활용 방법, 워드프로세서의 차이점 분석 등을 통해 AI와의 협업 가능성을 탐구한다.

서거석은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수학교사들이 문서를 그래프를 코딩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반도체공동연구소 반드시 유치하자”

전북대, 구성원들 모여 결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염원하는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과 산학협력단,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유치 TF 참여교수, LINC3.0 사업단,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반도체소부장역신용융합대학사업단, 반도체물성연구소 관계자, 재학생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뜻을 모았다.



전북대학교는 최근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염원하는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추진 TF에 참여하고 있는 임연호 교수가 사업 유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다함께 모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또한, 반도체 관련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전북대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완주군 등 지자체와 자동차용

합기술원, KFE(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반도체 장비 진흥화연구단, KIST 전북분원 등 유관 연구기관, 그리고 동우화인켈, 한솔케미칼 등 지역 반도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공동연구소 총력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고, 8일에는 도청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범지역적으로 총력을 펼치고 있다.

양오봉 총장 “반도체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OCI, 동우화인켈, 한솔케미칼 등 지역 우수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전북에 자리한다면 지역의 대학들과 지역 산업계가 협업하는 선순환형 교육 생태계가 구축돼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을 위한 최종 대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철판, 수업 집중도·이해도 향상에 도움”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인식 조사 결과 발표

85.3% “스마트철판 활용 수업 경험” · 76.5% “교육활동 도움”

스마트철판이 교사와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는 지난 6월 12~19일 교사 1,708명과 학생 4,3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철판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사 대상으로 스마트

철판 활용 수업 경험을 묻는 질문에 85.3%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0.5%, 중학교 77.2%, 고등학교 76.8%가 스마트철판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철판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7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스마트철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육자료의 효과적 전달(77.0%)’을

꼽았다.

이어 학생 대상 설문에서는 스마트철판 활용 수업이 수업 집중도와 이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71.0%와 71.4%로 확인됐다.

한편 스마트철판 활용에 있어 개선할 점으로는 활용 연수, 오류 개선, 발원 문제 등을 꼽았다.

한숙경 소장은 “이번 조사는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철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스마트철판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 전북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진행

총 98명 참여... 25일부터

호주 시드니·브리즈번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인턴십 참가 학생은 총 98명으로,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17와 27기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기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기계가공 15명, 전기·전자 16명, IT·미디어컨텐츠 4명, 원예조경 4명, 말사육 4명, 스마트팜 7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2기는 8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 과정이다. 조리·제과·제빵 17명, 헤어·피부·네일 10명, 서비스·사무·회계 7명, 용접 4명, 조적·미장·타일 2명, 애견미용 4명, 자동차 정비 4명 등 총 48명이 참여한다.

앞서 글로벌 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적응력 강화 캠프에 참여해 안전 교육 이수, 영문 이력서 작성 및 해외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인턴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발대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인턴십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북간호사회와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을 비롯해 신은숙 회장, 합선희 부회장, 정진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학생봉사활동, 현장견학,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실습 기자재 지원, 재직자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은숙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체계 활성화를 통한 학생봉사활동 및 현장견학, 취업연계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는 8,000여 회원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체로, 졸업한 간호사들의 재취업 교육과 재직자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취업 유지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훈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의 협약을 통해 간호학부 학생들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나이가 졸업생들이 현장에 잘 적응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